

日本정부가 4일 발표한

## 「위안부발표」日本内 반응

권하에서는 국회에 전후보  
상문제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청취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신은 또『당시의 일  
추구했다.  
도외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  
은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후보상문제에 정면대처  
하고 철저한 사실조사와  
자료탐색을 계속할 것』을  
추구했다.

지적했다.  
요시미교수는 『국제법위  
반및 보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에 조사위원  
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  
조사를 실시할 것을 기대

요가 있다.『해서』정부간의  
타결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東京=襄仁俊)

다.  
노외위원장은 『중간위원  
부는 당시의 일본정부가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제도  
로 설치한 것』이라며 『新正  
문은 5월 자 사설에서』 중  
군외안부 모집과 관리가  
충족되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판관장관  
담화도 피하자 명예회복을  
본이 밤을 향해서는 正邪  
의 판단을 상실했다는 점  
을 오늘날의 일본에 연결시  
켜 생각하는 경향이 오히려  
인물인물이기 위해서도

할만하다면서 『그러나 피  
해자에 대한 청취조사가  
극히 일부에 그치는 등 이  
번 조사는 예비조사의 영  
역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군이 일체  
가 돼 전쟁범죄를 저질렀  
다는 마음으로 부터의 반성  
이 표출되지 않았다』고 비

위안부 조속 배상  
 臺灣, 日 정부에 촉구  
 (臺北明報) 臺灣에 5월  
 대만출신 종군위안부들에  
 대해 신속한 배상조치를  
 취할 것을 日本 정부에 촉  
 구했다.  
 대만 의교부는 일본정부  
 가 전월 2차대전 당시 종  
 군위안부들에 대한 일본국  
 의 만행들을 시인한 것과 관  
 련을 맺고 고등정적인 조  
 치로 평가했으니 동시에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들이  
 행을 비단했다.  
 韓人들도 바키아外務  
 비자면제협정 추진  
 韓半洲의무장관의 5월  
 무라비치크 슬로바키아의  
 무장파와 회담을 갖고 양  
 국간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  
 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범민족대회 北 대표  
 入京하용 거들줄크  
 범민련 北측의장  
 [서울聯] 범민련 북측부  
 주의장 백인준은 4일 韓  
 完相을 일일장관에게 전하  
 통지문을 보내오는 6일 평  
 서울에서 열기로 한 범민  
 족대회 3차 실무회담에 참  
 가할 북측대표단의 판문점  
 통과와 신변안전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판명 중이었다.  
 이월 보냈었다.

의무부는 새로 출범하는 日本의 호소카와(細川) 내각에 대해 출가불한 기풍으로 축하의 뜻을 보내고 있다. 미야자와(宮澤) 정권 마지막 날인 바로 전날 韓日 양국간의 최대협안이었던 군대 위안부문제를 마무리하는 보고서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을 거부하던 日本 정부

## 記者(

한 부분에 대해서는 日本 정부  
가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연설을 의식해 마  
지못해 덧붙이는 애기처럼 들  
린다.

대국적인 전지에서 볼 때 더  
이상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韓日 양국 정부간에 냉을 불어  
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  
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앞장  
서서 군대위안부 문제를 마무리  
지우고 서두르는 듯한 모습이  
설득력이 약한지. 유고나 이미  
65년 韓日협정에서 모든 배상  
은 마무리됐다고 선언함으로써  
큰懸念을 남긴 적이 있다. 우리  
가 과거사를 제기할 때마다  
本측은 韓日협정을 내세워  
미 끝난 애기라고 맞서왔다.

이런 의군위안부문제에 관  
해 또한한 우리 스스로 발족이  
잘한 풀은 아닐까. 日本 정부의  
노력이 평가하되 양국간의 노  
력을 지켜보겠다는 식의 원만  
적인 반응에 보이기까지 하  
나왔다는 느낌이다.

우리가 과거사를 외교현안이  
로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  
연결조나 기술이전을 복잡하  
문제들이 산적한 韓日 양국관계  
가 「미래를 위한 관계」로 정  
립되는 것은 애기기 때문이다.

金次洙정지(2부)

金次洙(정치2부)